

짜릿한 루지의 재미 강촌에서 느끼자!

엘리시안 강촌은 2019년 봄에 무동력 특수 제작 카트

오전형 예정입니다. 서울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 엘리시안 강촌은 루지외 최적의 조건을 갖춘 스키 슬로프를 100% 활용하여 경사도와 코스 곡선도, 코스 난이도 등 짜릿함을 배가시켰습니다.

또한 루지의 재미와 함께 북한강과 검룡사의 수려한 풍경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

엘리시안 스키 슬로프에서 여름에도 즐기는 무동력 바퀴썰매 -루지

엘리시안 강촌 루지
2019년 6월 오픈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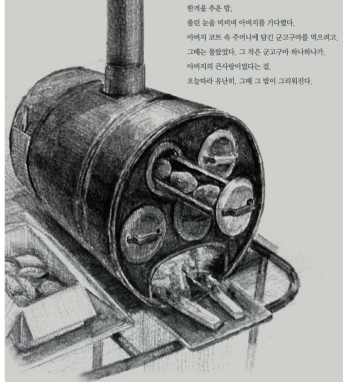
그날 월차 1,003원, 크기로 작으려 했던 내경이다.

루지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지형의 경사와 중력만을 이용해 트랙을 내려오는 다이내믹한 체험 레포츠로서 방향조절과 제동이 가능하며,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험의 즐거움과 함께, 트랙 경사가 높아질수록 더 큰 코스믹비버를 만날 수 있다.

트랙으로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보호구만 착용하면 남녀노소

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.

아버지의 큰고구마는,
I am Here Forever



세상 모든 것은, 누군가의 에너지다

I am
your
Energy

 GS칼텍스